

2026년 7월 22일

Hana FX Daily Letter

수급 여건 변화의 또 다른 변수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강달러와 엔저 부담에도 매도 우위 수급에 상승폭 제한**
daily range 예상: 1,475~1,487원

■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기 협상 기대가 약화되었음. 이에 따른 유가 불안과 연준의 긴축 경계감로 달러인덱스는 101선을 돌파.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맞물리며 엔화 약세가 심화된 점도 원화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다만, 수급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 등에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대외상방 압력을 받겠으나, 수급 요인에 상단 제한되며 1,48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2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4.1원 오른 1,482.0원에 마감**
장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 여파로 1,480원선까지 상승. 이후 당국의 수급 여건 개선 발언과 달러 매도 물량 유입으로 낙폭을 확대하며 1,47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 그러나 야간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자 상승 전환, 1,480원대 초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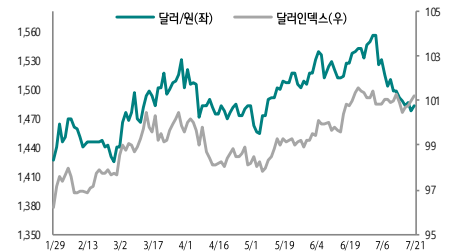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간 긴장감 속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체 관세 부과 예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강세폭이 확대됨
- (유로-달러) 독일의 경제심리지수가 전일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동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유로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
- (달러-엔)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과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163엔선을 돌파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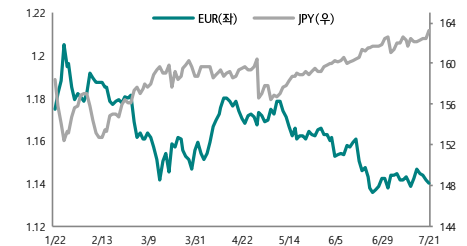
■ 최근 외환시장을 압박하던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양상임. 지난 5~6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급등에 따른 자산 재분배 차원에서 두 달 연속 4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 이 흐름은 7월 초까지 이어지며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을 크게 흔들며 놓았음.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코스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리밸런싱 움직임도 점차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간 원화 가치와 펀더멘털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던 주요 부담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임. 여기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 등 호재성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1,5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섬. 물론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에, 최근의 하락세에 더해 단기간 내 추가적인 급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시장을 짓누르던 수급 불균형이 차츰 해소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달러/원 환율은 1,450원선을 향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77.6	1,482.0	1,471.1	1,482.0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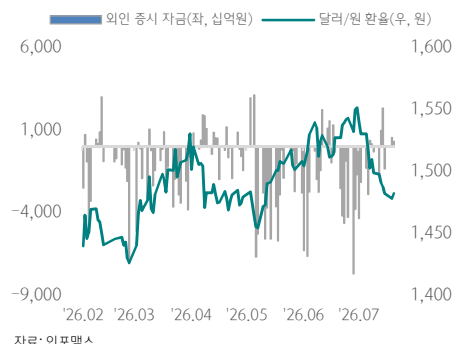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98	163.18	6.7686
전일대비	-0.0017	+0.70	-0.0003
재정환율	1,688.89	906.07	218.42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5:00	영국 6월 CPI상승률(YoY)	2.7%	2.8%

외국인 증시 자금 및 달러/원 환율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